https://doi.org/10.5392/JKCA.2018.18.01.031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이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Ego-identity and Multicultural Accetance in Adolescent

김혜진, 홍혜영
명지대학교 심리재활학과

Hye-Jin Kim(dearhj815@hanmail.net), Hye-Young Hong(hong77@unitel.co.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6차년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6차년도의 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6과 고3의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 다문화 수용성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기분석을 통하여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부분매개와 완전매개모형을 비교·분석한 결과 청소년 전체와 초6은 부분매개모형이, 고3은 완전매개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소년 초기에는 자아정체성의 형성이 다문화수용성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청소년 후기에는 공동체의식이 다문화수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발달에 따른 자아정체성 정립과 공동체의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적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중심어 : | 자아정체성 | 공동체의식 | 다문화수용성 | 한국 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ediating effects of sense of community between Ego-identit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Struatural analysis is performed with six - year panel survey data of elementary school 1st grade students and middle school 1st grade students from Korean child- Youth Panel survey. The subjects of six - year panel survey data are the sixth grade in the elementary school and High school senio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are differences in Ego-identity, sense of communit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between the sixth grade in the elementary school and high school seniors. Second, they are related. Third,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Ego-identity and sense of community have an affect on multicultural acceptance. Fourth, partial mediating effect is suitable for whole youth and sixth grader and complect mediation effect is suitable for high school seniors. In early adolescents, Ego-identity plays a direct role in multicultural acceptance. But in late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plays a direct role in multicultural acceptance. Base on these results, for improving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nce, It has suggested educational programs that helps to enhance Ego-identity and sense of community.

■ keyword : | Ego-identity | Sense of Community | Multicultural Acceptance | KCYPS |

접수일자 : 2017년 09월 12일
수정일자 : 2017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1월 09일
교신저자 : 홍혜영, e-mail : hong77@unitel.co.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 발표한 외국인주민 현황을 보면, 2015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171만 1,013명으로 인구 100명 당 3.4명은 외국인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1]. 급속한 세계화와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다문화가족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우리 사회가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가운데 사회통합의 문제와 함께 가치관의 변화가 복합적이고 다변적으로 변화되고 있어 단일민족임을 강조하던 한국 사회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는 문화적으로 풍성한 삶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우리 사회 문화가 발전하고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오랜 기간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같은 모순적인 측면들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2]. 따라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이 공존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관점과 인식, 태도와 가치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태도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에게는 중요한 자질로 요구된다. 문화의 상호 공존을 위해 인종, 편견 없는 관점과 언어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문화의 접촉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다양한 국가, 인종과 문화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수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사회적, 교육적, 그리고 가정에서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편견과 배타적인 마음을 없애고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이혜영(1993)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체 성원이 공동체의 생활환경 속에서 성장함으로써 서서히 형성되어 가는 것으로 획득되고 학습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3].

Erikson은 인간이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발달과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다. Erikson의 이론이 이전의 다른 이론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대부분의 중요한 성장변화는 청년기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진다는 관점을 정정하고 전 생애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보았다는 것이다[4].

Erikson은 인간의 심리사회적발달을 8단계로 나누었다[4]. 각 단계를 보면 유아기는 신뢰 대 불신, 초기아동기는 자율 대 수치와 의심, 학령전기는 주도성 대 죄책감, 학령기는 근면 대 열등, 청소년기는 정체성 대 정체성혼란, 성인기는 친밀감 대 고립감, 중년기는 생산성 대 침체감, 노년기는 통합 대 절망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rikson의 발달단계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며 자아정체성 대 정체성혼란의 시기인 12세-18세를 대상으로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초6과 성인기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고3의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발달시기에 따라 자아정체성이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청소년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자아정체성을 Erikson (1968)[5]은 자신의 독특성에 대해 비교적 안정된 느낌을 갖는 행동, 사고 그리고 감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 갖는 일관성을 의미하며, 청년기의 발달과업을 자아정체성의 성취 대 역할 혼란으로 설명하였다[2]. 자아정체성(ego-identity)의 발달을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미래까지의 점진적인 연속성 가운데에서 느끼는 자기 지각을 의미하기에 자아정체성이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를 검증함에 있어 서로 다른 학년 집단을 비교하는 것은 학년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적 개입방법에 대한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급속한 세계화의 변화에 들어와 있는 현재 시점에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따라 자아정체성이 공동체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에 변화가 있는지, 공동체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문제

1. 초6과 고3의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에 차이가 있는가?
2.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 간에는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3. 자아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4. 자아정체성은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성을 독립변수로, 다문화수용성을 종속변수로, 공동체의식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1][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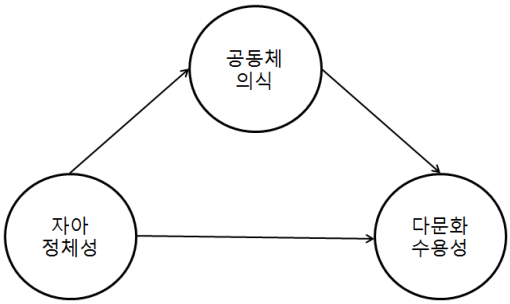

그림 1. 모형1(부분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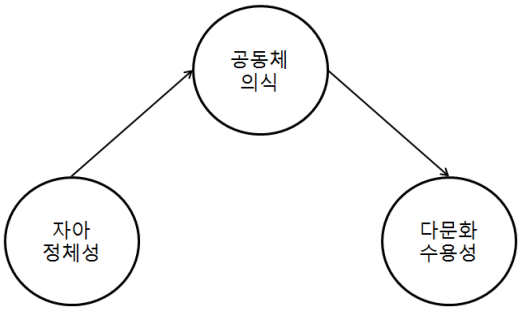

그림 2. 모형2(완전매개모형)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수용성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서로 다른 인종.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일컫는 개념으로, 다문화사회로의 이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민족.인종과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이다[6].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주변에서 낯설지 않게 외국인과 접하게 된다. 또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현재 외국인 부모의 자녀들이 한국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연령에 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와 다른 문화와 인종에 대한 편견은 학교나 사회에서 바르지 못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다문화 수용은 본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집단의 청소년들, 예컨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한국 사회 혹은 학교에 적응하는 데도 기여하여 올바른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급격한 발달을 경험하는 시기이며, 개인의 내부요인뿐만 아니라 외부요인에 의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은 성인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7].

한편 Kim과 Hwang(2012)은 학생들이 타인종을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 평등주의 성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8].

2. 공동체의식

이혜영(1997)은 공동체의식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체 성원이 성장해 가는 공동체의 생활환경 속에서 성장함으로써 서서히 형성되어 가는 것으로, 획득하는 것이며, 학습되는 것이라고 하였다[3].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단순히 지역적이고 집합적 성격을 의미하기보다 정서적, 정신적 측면에서의 공감대를 의미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공동체 의식은 심리적 요소를 포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집단이나 조직, 사회의 성원으로서 개인들이 소속감과 상호의존성, 상호헌신을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하며[9], 또한 공동체의식은 학교나 또래집단 등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소속감 및 동질감, 친밀감을 느

끼는 상태로[10], 아동들이 긍정적이고 친화적인 태도를 가지며 친구들과 교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 과 존중 뿐 아니라,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아동이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수용하는데 있어 증폭제 역할을 한다.

Sarason(1974)은 공동체의 개념을 지리적, 지역적 특징과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적 특징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공동체 의식을 구성원 간의 소속감과 결속감을 인식하고 각 성원의 욕구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는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11]. 따라서 공동체 의식은 지리적 거점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생활에서의 개인적 경험에서부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같이 지니고 있고 또한 지녀야 할 감정이나 정서, 가치관, 윤리의식 등을 포괄하는 개념까지 다양하다[12].

공동체의식은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 권력행사 기회, 또래관계 등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시민적 참여활동이나 자원봉사, 여가활동, 체험활동 들 다양한 참여활동 역시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확인되고 있다[12].

3. 다문화수용성과 공동체의식

Kimlicka(1995)는 다문화 사회에서 연대감과 목적 달성을 위해 하나의 공동체는 다양한 민족적 정체성들을 수용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는데[11], 이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공동체 의식과 타민족에 대한 수용성은 사회통합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13].

청소년에게 있어서 공동체의식은 중요한 변수이지만 청소년의 편향된 사고의 발달은 왕따, 학교폭력 등 다양한 학교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의 문화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저하시킴으로써 사회 통합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오늘날 세계화가 되어 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의 함양은 중요한 과제이다. 공동체의식은 지리적 공통성을 뛰어넘어 지역사회 내 함께 생활하는 이주민에 대한 존중과 배려,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것으로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변수이다.

공동체의식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동들은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학습활동이 원만하며 학교규칙준수 및 또래 친구와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4], 다문화가정 친구들과도 배경에 상관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 또한 박혜숙(2010)은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이 서로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6]. 그러나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서봉언(2015)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수용성이 각 시점에 대해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동체의식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17].

반면 학교에 대한 소속감 및 또래집단에 대한 친밀감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결핍되어 있는 아동의 경우, 또래들로부터 거부당하거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18], 이는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문제를 동반하고 향후 타인종 및 타문화 수용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19].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아동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자아정체성

Erikson(1968)에 의하면 정체성이란 우리 자신의 독특성에 대해 비교적 안정된 느낌을 갖는 행동, 사고 그리고 감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 갖는 일관성을 의미하며, 청년기의 발달과업을 자아정체성의 성취 대 역할 혼란으로 설명하였다[5].

자아정체성의 형성은 유아기 애착의 출현에서부터 시작되어, 아동기의 경험과 동일시에 그 뿌리를 두고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 까지 계속 발달하며, 노년기에 이르러 인생의 회고와 더불어 통합감을 이룰 때 비로소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따라서 연령증가에 따라 정체성 수준이 높아지고 안정되어가는 경향을 보고하는 선행연구들이 많이 있다[20][21].

Erikson의 심리사회적발달이론에 의하면 청소년기에 자아정체성을 성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5단계에서 긍정적 해결 방안으로 정체성을 성취한 후 6단계에서 다른 사람과 친밀감에 대한 위기를 맞게 되는데, 개방성과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원활한 사회적 관계 구축이 가능할 수 있다[15].

5.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

자아정체성 확립은 소속감으로 확장되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반면에 자아정체성 혼란은 부정적 정서를 만들어 배타적인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 청소년의 배타적 공동체의식은 집단 따돌림과 학교폭력 같은 다양한 학교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22], 타문화에 대한 편견적 이해를 가져와 사회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 최근 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다양한 국가와 인종 간에 교류가 증진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바라보면 학교에서와 사회에서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의식의 함양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23].

주동범(2010)은 문화예술활동이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정서와 사회적 정서 두 영역인데, 개인적 정서로서 자아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이는 사회적 정서로서 소속감을 고취시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고 하였다[24].

6. 자아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vedlitz 과 Zahrran(2007)의 연구에 의하면 정체성은 다문화 수용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또한 자아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해외방문, 그리고 외국인과의 접촉은 다문화 수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이다[25]. 그리고 이웃에 대한 도움과 봉사활동은 공동체 의식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자존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7].

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에 대한 연구를 보면,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6]와 시민정체성, 민족정체성, 문화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연구, 그리고 단일민족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과의 관계[17]등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한 개인으로서의 자아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들을 자기의 고유한 방식으로 조직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동일성, 연속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인식하며, 행동하게 하는 능력인 자아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성이 다문화 수용성과 공동체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Korean Child Youth Panel Survey, KCYP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2010년 층화다단계집략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방법을 활용하여 전국 단위의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5년 동안 반복 추적하여 설문이 진행되어 현재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설문이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Erikson의 발달단계 중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인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초기 청소년기와 후기 청소년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인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0년 첫 데이터 수집 시에는 초등학교 1학년은 2,342명, 중학교 1학년은 2.351명이였으나 6차년도의 자료수집 시 종단 자료 수집의 특성상 탈락자들이 발생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2,067명, 고등학교 3학년 2,056명으로 총4,123명이 최종 연구대상이 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청소년 패널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의 6차년도 자료(2015년)를 활용하였다[26][27].

1) 자아정체성

이 척도는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역),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역),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 한다',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영향 받기 쉽다'(역),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 한다'(역),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때에는 마음이 불편하다'(역)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이며 5개의 역채점이 있다. 변수의 .Crobach's a는 초6 데이터는 .627, 고3 데이터는 .714이다.

2) 공동체의식

이 척도는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로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이며 Crobach's a는 초6 데이터는 .805, 고3 데이터는 .733이다.

3) 다문화 수용성

이 척도는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친구로 사귈 수 있다', '커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로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이며 Crobach's a는 초6 데이터는 ,841, 고3 데이터는 .860이다.

3. 자료분석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요 변수의 특성 분석, 신뢰도 Cronbach's a 분석을 실시하였고,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위해 AMO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 다문화 수용성 간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 다문화 수용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1]에 평균과 표준편차, t값을 제시하였다.

표 1.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년의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 검증

변인	등분산	초6 (n=2,067) M(SD)	고3 (n=2,056) M(SD)	t값
자아정체성	가정함 (.444)	2.215 (.423)	2.321 (.414)	−8.190***
공동체의식	가정하지 않음 (.000)	1.912 (.601)	2.014 (.505)	−5.889***
다문화수용성	가정하지 않음 (.000)	1.935 (.609)	1.845 (.555)	4.968***

*p<.05, **p<.01, ***p<.001

초등학교 6학년의 평균과 고등학교 3학년의 평균에서 자아정체성은 t=−8.190(p<.001)으로, 공동체의식은 t=−5.889(p<.001), 다문화수용성은 t=4.968(p<.001)로 보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6과 고3을 비교해보면 자아정체감은 초6이 2.215이고 고3이 2.321로 고3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공동체의식 또한 초6이 1.912이고 고3이 2.014로 고3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 수용성은 초6이 1.935이고 고3이 1.845로 초6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아정체성,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성의 상관관계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2], 자아정체성은 공동체의식과 .349, 다문화수용성과는 .237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동체의식 또한 다문화수용성과 .459의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p<.001).

표 2.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간의 상관분석 결과

변인	1	2	3
1. 자아정체성	1.00		
2. 공동체 의식	.349***	1.00	
3. 다문화수용성	.237***	.459***	1.00
평균	2.265	1.963	1.890
표준편차	.422	.557	.584
왜도	−.317	.090	.077
첨도	.228	.268	−.395

*p<.05, **p<.01, ***p<.001

3.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을 독립변인으로, 다문화수용성을 종속변인으로 지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인 자아정체성(β=.088, p<.001), 공동체의식(β=.429, p<001)은 다문화수용성을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574, p<.001). R^2은 .218로 다문화수용성에 대해 22%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의 확인을 위해 Durbin-Watson과 VIF를 보았다. Durbin-Watson은 1-3사이의 값을 보이면 잔차의 독립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1.886으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이 충족되었고, VIF값은 10 미만이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1.138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3.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SE	t	
다문화 수용성	자아 정체성	.122	.088	.020	5.981***	R=.467 R^2 =.218 F=574.002***
	공동체 의식	.450	.429	.015	29.172***	

*p<.05, **p<.01, ***p<.001

4.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년의 자아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 효과

1)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측정모형은 잠재변수들이 측정변수들을 통해 어떻게 측정되는 가를 설정한 것인데, 측정모형분석을 통해 잠재변수로 사용된 변수의 지표들이 이론적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28].

우선 측정모형이 표본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결과, 초6의 RMSEA 값은 .029이고 고3의 RMSEA 값은 .031이다. 이는 .05이하면 표본과 모형의 오류가 아주 적은 매우 양호한 모형으로 평가하고 .05에서 .08사이면 오류의 정도가 적절한 정도로 괜찮은 모형으로 평가한다는 문수백(2009)의 기준에 적용시켜볼 때 매우 양호한 적합도라고 할 수 있다. 초6의 다른 적합지수는 NFI(.995), RFI(.983), IFI(.997), TLI(.988), CFI(.997)이고 고3의 다른 적합지수는 NFI(.993), RFI(.975), IFI(.995), TLI(.983), CFI(.995)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든 기준인 .9이상으로 적합도 지수 기준에 충족되고 있다[29].

2) 구조모형 검증

(1) 전체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전체의 매개 모형을 분석한 결과, 적합한 모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자승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실시결과, 두 모형을 비교해 보면 부분매개 모형이 완전매개 모형에 비해 $\triangle df$ 값이 1, $\triangle X^2$ 값이 17.88이다. 유의수준 .001, 자유도1일 때 임계치는 3.84 이므로, 부분매개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그림 3]. 채택된 부분매개의 경로계수는 자아정체성 → 공동체의식(β=.495, p<.001), 공동체의식 → 다문화수용성(β=.547, p<.001), 자아정체성 → 다문화수용성(β=.093, p<.001)의 세 경로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자아정체성은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다문화 수용성

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가 검증되었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경로계수를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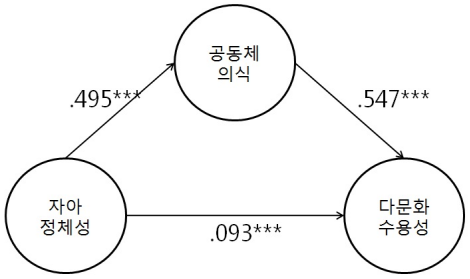

그림 3. 전체 부분매개모형
*p<.05, **p<.01, ***p<.001 주. 숫자는 표준화 계수

표 4. 전체의 적합도 지수

전체	X^2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부분매개	32.859 (df=6, p=.000)	.985	.996	.031 (.021~.042)
완전매개	50.739 (df=7, p=.000)	.979	.993	.036 (.015~.025)

표 5. 전체의 경로계수

부분매개경로	B	β	S.E	t
자아정체성 → 공동체의식	.655	.495	.038	17.284***
공동체의식 → 다문화수용성	.593	.547	.024	24.813***
자아정체성 → 다문화수용성	.133	.093	.032	4.205***

*p<.05, **p<.01, ***p<.001

최종모형에서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를 산출하였다. 최종모형의 효과분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bootstrapping 방법으로 95% 신뢰구간을 분석한 결과 자아정체성이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339~.455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검증 되었다.

표 6. 전체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분석

전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B	β	B	β	B	β
자아정체성 → 공동체의식	.655***	.495***	–	–	.655***	.495***
공동체의식 → 다문화수용성	.593***	.547***	–	–	.593***	.547***
자아정체성 → 다문화수용성	.133***	.093***	.388***	.271*** (.339~.455)	.521***	.364***

*p<.05, **p<.01, ***p<.001

(2) 초6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초등학교 6학년의 매개 모형을 분석한 결과, 적합한 모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자승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두 모형을 비교해 보면 부분매개 모형이 완전매개 모형에 비해 $\triangle df$ 값이 1, $\triangle X^2$ 값이 23.22이다. 유의수준 .001, 자유도1일 때 임계치는 3.84 이므로, 부분매개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그림 4]. 채택된 부분매개의 경로계수는 자아정체성 → 공동체의식(β=.519, p<.001), 공동체의식 → 다문화수용성(β=.584, p<.001), 자아정체성 → 다문화수용성(β=.153, p<.001)의 세 경로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자아정체성은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가 검증되었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경로계수를 [표 7]과 [표 8]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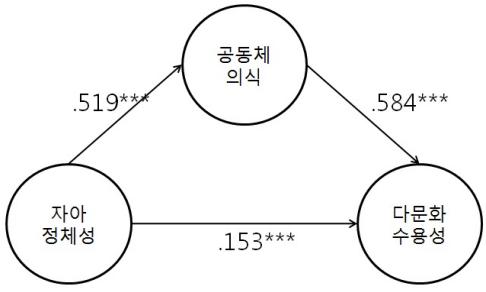

그림 4. 초6 부분매개모형
*p<.05, **p<.01, ***p<.001 주. 숫자는 표준화 계수

표 7. 초6의 적합도 지수

초6	X^2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부분매개	17.809 (df=6, p=.007)	.988	.997	.029 (.014~.045)
완전매개	41.029 (df=7, p=.000)	.971	.990	.046 (.033~.060)

표 8. 초6의 경로계수

초6	B	β	S.E	t
자아정체성 → 공동체의식	.745	.519	.059	12.630***
공동체의식 → 다문화수용성	.587	.584	.031	19.136***
자아정체성 → 다문화수용성	.221	.153	.047	4.659***

*p<.05, **p<.01, ***p<.001

최종모형에서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를 산출하였다. 최종모형의 효과분석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초6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분석

초6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B	β	B	β	B	β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	.745***	.519***	–	–	.745***	.519***
공동체의식 → 다문화수용성	.587***	.584***	–	–	.587***	.584***
자아정체성→ 다문화수용성	.221***	.153***	.438***	.303*** (.425~.620)	.659***	.456***

*p<.05, **p<.01, ***p<.001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bootstrapping 방법으로 95% 신뢰구간을 분석한 결과 자아정체성이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425~.620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검증 되었다.

(3) 고3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고등학교 3학년의 매개 모형을 분석한 결과, TLI, CFI, RMSEA를 통해 본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 모두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적합도가 유사하게 나타난 두 모형은 내포관계에 있어 X^2의 차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므로[30] 두 모형의 우수성을 비교하기 위해 X^2검증을 실시하였다. X^2의 차이는 자유도의 차이가 1인 상태에서 유의확율 .05 수준의 X^2의 임계치는 3.84이다. 두 모형의 적합도 실시 결과, 두 모형은△df 값이 1, △X^2 값이 3.49을 나타내어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 모형의 차이가 아주 미미하였다. 미미한 차이임에도 최종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부분매개모형의 카이제곱값이 작지만, X^2의 차이가 3.84보다 작은 3.49를 나타내고 자유도가 1 높은 완전매개모형을 미세하게나마 더 적합한 모형으로 선정하여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그림 5]. 채택된 완전매개의 경로계수는 자아정체성 → 공동체의식(β=.463, p<.001), 공동체의식 → 다문화수용성(β=.546, p<.001)의 두 경로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자아정체성은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가 검증되었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경로계수를 [표 10]과 [표 1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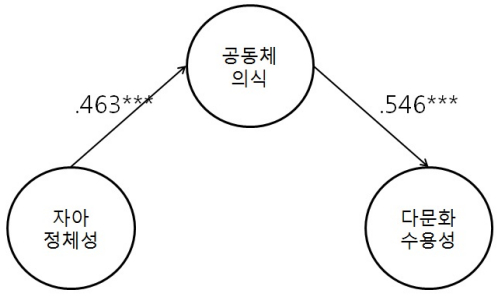

그림 5. 고3 완전매개모형

*p<.05, **p<.01, ***p<.001 주. 숫자는 표준화 계수

표 10. 고3의 적합도 지수

고3	X^2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부분매개	19.871 (df=6, p=.003)	.988	.995	.034 (.017~.047)
완전매개	23.361 (df=7, p=.001)	.988	.994	.034 (.018~.046)

표 11. 고3의 경로계수

고3	B	β	S.E	t
자아정체성 → 공동체의식	.581	.463	.050	11.631***
공동체의식 → 다문화수용성	.622	.546	.033	19.042***

*p<.05, **p<.01, ***p<.001

최종모형에서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를 산출하였다. 최종모형의 효과분석 결과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2. 고3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분석

고3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B	β	B	β	B	β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	.581***	.463***	–	–	.581***	.463***
공동체의식 → 다문화수용성	.622***	.546***	–	–	.622***	.546***
자아정체성 → 다문화수용성	–	–	.362***	.253*** (.291~ .429)	.362***	.253***

*p<.05, **p<.01, ***p<.001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bootstrapping 방법으로 95% 신뢰구간을 분석한 결과 자아정체성이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291~.429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검증 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의 패널데이터 6차년도의 자료로 현재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자아정체성이 공동체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교하기 위해 Erikson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였다. Erikson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이 자아정체성의 성취 대 역할 혼란이라고 하였으며[5], 이에 초기 청소년기인 초등학교 6학년과 후기 청소년기인 고등학교 3학년이 본 연구에 적합한 대상으로 사료되었다.

본 대상으로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가 있는지와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아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간의 공동체의식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변수들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변인들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은 고등학교 3학년이 초등학교 6학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다문화수용성은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후기 청소년기인 고등학교 3학년은 정체성의 정립이 정교화 되어 있을 시기고 소속감과 동질감, 친밀감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기에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이 초등학교 6학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초기 청소년기인 초등학교 6학년은 정체성의 정립이 시작되는 시기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함에 있어 유연함이 있을 것이기에 다문화수용성이 고등학교3학년보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다문화 수용성의 향상을 위해 초기 청소년기와 후기 청소년기에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은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이 관계가 있다는 연구[24]와 정체성과 다문화수용이 관계가 있다는 연구[15], 그리고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이 관계가 있다는 연구[17]와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셋째,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본 결과,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3학년 모두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는 자아정체성이 공동체의식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15], 공동체의식이 다문화 수용을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같은 것이다[31]. 이 결과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소속감과 동질감, 친밀감을 느끼는 청소년시기가 타인종과 타문화를 수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넷째,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3학년의 자아정체성이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다문화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두 개의 연구모형을 경쟁시킨 결과 초등학교 6학년은 부분매개모형이, 고등학교 3학년은 완전매개모형이 적합하게 채택되었다. 이는 공동체의식이 초등학교 6학년은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이고, 고등학교 3학년은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 초등학교 6학년은 자아정체성이 다문화 수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고등학교 3학년은 자아정체성의 향상만으로는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학년이 올라 갈수록 자아정체성과 함께 공동체의식이 다문화수용성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rikson의 심리사회적발달에 의한 초기 청소년기인 초등학교 6학년은 정체성의 정립이 시작되어 가는 시기로 그 시기에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타인종과 타문화의 접촉[25]이나 편견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이 공동체의식의 향상과 함께 다문화 수용성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후기 청소년기인 고등학교 3학년은 정체성 향상만으로는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약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후기 청소년은 정체성이 거의 정립되어가는 시기이기에 이 시기에는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체성의 향상 보다 공동체의식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이 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다문화 수용은 공동체의식과 관련이 깊다는 서봉언(2015)의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17].

서봉언(2015)의 연구에서 다문화 수용에서의 공동체의식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으며[17], 한번 형성된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은 꾸준히 이어지므로 형성과정에서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결과는 타인종 및 타문화에 대한 수용은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 내 동일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배려와 나아가 적극적인 도움 등의 실천적이고 보편적 가치인 공동체의식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초등학생은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이, 고등학생은 공동체의식의 향상을 돕는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의 패널데이터 6차년도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으로 청소년기의 초기와 후기이다. 본 연구결과로 초기 청소년기와 후기 청소년간의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 다문화 수용성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짐으로 인해 현 시점에서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방법에 대해 발달에 따른 학년별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다문화 사회가 요구하는 공동체 의식과 같은 시민적 덕성은 자신의 개인적 관리와 때때로 충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개인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신념들과 가치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기꺼이 수용하고 이해하며 살아가야 한다. 세계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의 권리만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거나 때로는 억압하는 공동체가 우리의 삶에서 결정적인 요소라는데 이견은 없다[32].

특히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해 학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으며, 새로운 세계화 다문화 사회가 요구하는 공동체적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단계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 자기희생과 헌신 등 공동체적 윤리를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3]. 이와 같은 공동체 의식은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존재 의미를 결정하는 보편적 가치로 인정됨과 동시에, 당면한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실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 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학교 교육이 인지적 역량 요소만 강조하고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 등과 같은 인성적 측면의 형성을 간과하게 된다면, 이는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 및 발달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 교육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급변하는 현 사회에 맞게 단순히 보편적 가치의 내용에 근거한 인지적인 발달뿐 아니라, 인성적 발달에도 학교 교육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이는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학교의 전체적인 교육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동일한

맥락이다[12].

따라서 세계화 및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정체성의 정립시기에 다문화 수용성과 공동체 의식의 교육은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하였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가 함의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토대로 앞으로의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규모의 표본 자료인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제한된 변인들과 제한된 문항으로 변인을 측정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 변인을 보다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연구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 수용성의 예측요인인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의 관계를 초기 청소년기와 후기 청소년기로 나누어 봄으로 인해 다문화 수용성의 향상을 위해 발달시기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 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2016.

[2] 윤상우, 김상돈, “한국사회의 다문화 개방성에 대한 실증분석,”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pp.109-122, 2010.

[3] 이혜영, “공동체적 사회연대 구축을 위한 품성교육의 방향,” 교육사회학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제3권, 제2호, pp.113-134, 1993.

[4] E.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New Yock: W.W. Noton, 1950.

[5] E. H. Erikson, "Identity-Youth & Crisis," W.W. Noton & Company, Inc, 1968.

[6] 윤인진, 권일남, 김태균, 배진숙, 송영호,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한민족의식, 다문화 수용성, 접촉 경험의 효과,” 통일문제연구, 제27권, 제1호, pp.31-68, 2011.

[7] 서봉언, 조현미, 김민영,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 관련 요인 탐색,”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9권, pp.179-207, 2015.

[8] K. K. Kim and Y. J. Hwang, “Determinant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39, No.1, pp.87-117, 2012.

[9] 박재숙, “중학교 신입생의 봉사활동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9호, pp.1-24, 2013.

[10] 한대동, 오경희, “초등학교에서의 공동체적 수업실천과 공동체의식이 학교폭력 자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제23권, 제4호, pp.207-235, 2013.

[11] S. B. Sarason, "The psychology sense of community: Prospect for a community psychology," San Francisco: Jissey-Bass, 1974.

[12] 강가영, 장유미,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제10권, 제1호, pp.97-123, 2013.

[13] W. Kimlicka,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14] 최형임, 문영경,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5권, pp.189-209, 2013.

[15] 양계민,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3권, 제2호, pp.59-79, 2009.

[16] 박혜숙, “초등 및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요인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 제44권, pp.5-33, 2014.

[17] 서봉언, “한국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 수용성 간 상호 인과관계,” 한국청소년시설환경

학회, 제13권, 제2호, pp.111-120, 2015.
[18] 강승희, “중학생의 부모애착, 우울, 심리적안녕감,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제58권, 제3호, pp.1-29, 2010.
[19] 우유라, 노충래,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제16권, 제2호, pp.203-227, 2014.
[20] 서봉연, *자아정체감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5.
[21] M. H. Dignan,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pp.476-483, 1965.
[22] 이동원, 주동범, “지역갈등에 대한 청소년의식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 보고서, pp.3-114, 2000.
[23] 정득, 김은수, 이종석,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과 공동체의식-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4호, pp.259-289, 2016.
[24] 주동범,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탐색,” 상담평가연구, 제3권, 제1호, pp.61-70, 2010.
[25] A. Veditz and S. Zahran, ″Theories of ethnic social distinct ethnic groups,″ Sociological Spectrum, Vol.27, pp.585-603, 2007.
[2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KYCPS 조사 코드북, 2015.
[2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KYCPS 초1, 중1 패널 6차 조사 데이터, 2016.
[28] 강상경, 좌현숙, “지역사회정신보건 재활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자기효능감 및 삶의 질-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3호, pp.185-213, 2007.
[29] 홍세희,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임상심리학회, 제19권, 제1호, pp.161-177, 2000.
[30] 안선경, 정여주,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8권, 제3호, pp.719-741, 2016.
[31] 양영미, 김진석,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제17권, 제4호, pp.309-328, 2015.
[32] 김범춘, “다문화사회의 정치철학으로서 공동체주의의 가능성,”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제24권, 제2호, 2013.

저 자 소 개

김 혜 진(Hye-Jin Kim) 정회원

- 2012년 1월 ~ 2017년 2월 : 명지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전임연구원
- 2015년 3월 ~ 현재 : 명지대학교 심리재활학과 박사수료

<관심분야> : 성인상담, 청소년상담, 집단상담, 행복, 대인관계, 삶의 질

홍 혜 영(Hye-Young Hong) 종신회원

- 2006년 : 이화여대 대학원 심리학과 상담심리전공 박사
- 2008년 ~ 현재 :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교수
- 2013년 ~ 현재 : 명지대학교 대학원 심리재활학과 교수

<관심분야> : 청소년상담, 정신상담, 적응, 대인관계, 성격